

강현  
좌과  
명리학

시즌5 이론세미나



제三강

# 연해자평

| 계선편  
| 繼善篇

名標金榜。須還身旺逢官。

得佐聖君。貴在沖官逢合。

金榜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신왕하고 관성을 만났기 때문이요,  
성군을 보좌함에는 沖官逢合에 貴가 있다.

非格非局. 見之焉得爲奇.

身弱遇官. 得後徒然費力.

격도 이루지 못하고 국도 이루지 못하면

재관을 보나 어찌 기특함이 있으리요.

신약한데 관을 만나면

영화가 있어도 힘을 허비할 뿐이다.

小人命內亦有正印官星。

소인의 사주에도 정인이나 관성이 있다.

君子格中。

也犯七殺羊刃。

군자의 격중에도 칠살과 양인이 있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爲人好殺。

羊刃必犯於偏官。

살생을 좋아하는 것은  
양인이 칠살을 범했기 때문이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素食慈心。

印綬遂逢於天德。

素食을 하며 자비로운 것은  
인수가 천덕을 만났음이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生平少病。

日主高強。

평생 병이 적은 것은  
일주가 강한 때문이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一世安然。

財命有氣。

일생을 편안한 것은  
재와 명이 힘이 있기 때문이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官刑不犯.

印綬天德同宮.

관재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인수와 천덕이 동궁하기 때문이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少樂多憂.

蓋因日主自弱.

즐거움이 적고 근심이 많은 것은  
대개 일주가 약하기 때문이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身強殺淺。

假殺爲權。

신강하고 살이 쇠약하면  
살을 관으로 삼는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殺重身輕。

終身有損。

살이 많고 신약하면  
평생 손해가 있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衰則變官爲鬼。

旺則化鬼爲官。

일주가 쇠약하면 관도 살이 되고,  
신왕하면 살도 관이 된다.

月生日干.

運行不喜財鄉.

월이 일간을 생하면  
財運을 꺼린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日主無依.

却喜運行財地.

일주가 태왕하여 의지할 바가 없으면  
財運을 기뻐한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時歸日祿。

生平不喜官星。

時에 일주의 祿이 있으면  
평생 관성을 기뻐하지 않는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 陰若朝陽. 切忌丙丁離位.

음일간이 양을 만나면 병정위를 꺼린다.

(六陰朝陽格을 말하는 것이다. 六辛日이 戌子時를 만나면 육음조양이니 만일 연월에서 병정을 만나면 南方火가 辛을 상하니 朝陽이 안된다. 참된 격국을 이루어 병정을 보지 않으면 대부귀하는 명이 된다.)

# 陰若朝陽. 切忌丙丁離位.

태세는 衆殺의 主이나 命에 반드시 재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투전(일간이 태세를 극함)의 운이 되면 刑傷이 있다.

(태세는 일년동안의 길흉을 좌우하는 君이 되니 衆殺을 통솔하는 主君이다. 흉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사주에 양인제살이 있고 일주가 歲君을 형극하면 신하가 임금을 범하는 것이니 반드시 鬪戰의 祛가 있다.)

歲傷日干. 有禍必輕.

日犯歲君. 災殃必重.

歲君이 일간을 극하면 화가 가볍지만 일간이 세군을 범하면 재앙이 중하다.

(태세가 일간을 극하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니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 그 화가 가볍지만 일간이 세군을 극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극하는 것이니 그 죄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신하가 임금을 극하는 것과도 같으니 반드시 화를 초래한다.)

五行有救。其年反必爲財。

四柱無情。故論名爲剋歲。

사주오행이 歲君을 구함(통관)이 있으면 반대로 재물을 얻는다.  
사주가 無情(구함이 없음)하므로 이름을 剋歲라 하는 것이다.

(일간이 세군을 범하더라도 일주에 식신이 있어 통관하면 화가 줄어든다. 따라서 도리어 재물을 얻는다고 한 것이다. 식신이 없으면 편재를 극하여 세군을 범하니 禍가 이른다.)

庚辛來傷甲乙.

丙丁先見無危.

경신금이 갑을목을 극하는데 병정을 먼저 보면 위태롭지 않다.

(庚辛金이 甲乙木을 극하더라도 丙丁을 보면 庚辛金을 제압하니 甲乙木이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여환주] 내 자식이 나를 원수(칠 살)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다.)

丙丁反剋庚辛。壬癸遇之不畏。  
戊己愁逢甲乙。干頭須要庚辛。  
壬癸透露戊己甲乙臨之有救。  
壬來剋丙。須要戊字當頭。  
癸去傷丁。却喜己來相制。

丙丁火가 庚辛金을 극하더라도  
壬癸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戊己土가 甲乙木을 두려워하면  
干頭에 반드시 庚辛金이 있어야 한다.

壬癸와 戊己가 천간에 투출하였는데 甲乙이 있으면 구함이 있다.  
壬이 와서 丙을 극할 때는 戊가 천간에 당두해야 한다.  
癸水가 丁火를 상하는데 己土가 와서 제압하면 좋다.

庚得壬男制丙. 天作長年.

甲以乙妹妻庚. 凶爲吉兆.

庚金이 壬水아들을 얻어서 丙火를 제압하면(식신이 제살하면) 수명이 길고, 甲이 乙木누이를 庚金에게 시집보내면 흉이 변하여 길하게 된다.

(경금은 병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바 임수가 병화를 제압하면 도리어 길하게 된다. 갑을이 경금을 꺼리는데 을목누이가 경금과 합하여 처가 되면 갑목은 흉이 길로 변하게 된다.)

天元雖旺. 若無依倚是常人.

日主太柔. 縱遇財官爲寒士.

천원일주가 왕성하더라도 의지할 바(재관)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다. 일주가 태약하면 비록 재관을 만나도 평범한 선비가 될 뿐이다.

(벽옥가에 말하기를 천원일주가 태왕한데 연월시에 재관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빈한하거나 스님도인이 되거나 고독한 사람이요, 일주가 태약한데 재관이 많으면 반대로 재앙이 되고 재관을 감당치 못하므로 辛苦하고 행색이 초라하다.)

# 女人無殺。帶二德作兩代之封。

여명에 殺이 없고 천덕월덕이 있으면 兩代의 녹봉을 받는다.

(여명은 편관칠살을 꺼리는 바 살이 없고 천월덕이 모두 있으면 반드시 녹봉을 받을 것이요. 자비롭고 온후하며 너그러우니 덕이 있다. 諸殺을 제압하여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한다.)

# 男命身強. 遇三奇爲一品之貴.

남명이 신강한데 삼기귀인을 만나면 일품의 귀인이 된다.

(시결에 이르기를 일주가 고강하고 부귀함은 재관인수를 모두 얻었기 때문이다. 甲이 辛巳癸를 만나면 財官印綬를 모두 얻은 것이고, 乙이 戊庚壬을 만나거나, 丙이 癸辛乙을 만나거나, 丁이 壬庚甲을 만나거나 戊가 癸乙丁을 만나거나, 己가 壬甲丙을 만나서 파괴됨이 없으면 重臣으로 이름이 金殿에 오른다.)

甲逢己而生旺. 定懷中正之心.

甲이 己를 만나 합이 되어 생왕하면  
中正之心을 가지고 있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丁遇壬而太過. 必犯淫訛之亂.

정이 임을 만나 태과하면  
반드시 음란하고 샷됨이 있을 것이다.

# 丙臨申位. 逢陽水難獲延年.

丙이 申位에 임하고 陽水(壬)를 만나면 수명이 길기가 어렵다.

己入亥宮. 見陰木終爲損壽.

己土가 亥宮에 들어가고 陰木(乙)을 보면 수명을 손상한다.

庚值寅而遇丙. 生旺無危.

庚이 寅位에 앉고 丙을 만나면 생왕이라야 위태롭지 않다.

乙遇巳而見辛. 身衰有禍.

乙이 巳에 앉았는데 辛金을 만나고 신약하면 禍가 따른다.

乙逢庚旺. 常存仁義之風.

乙이 庚을 만났는데 庚이 왕성하면 인의의 풍도가 있다.

丙合辛生。鎮掌威權之職。

丙이 辛을 합하면 威權의 직책을 관장한다.

一木重逢火位. 名爲氣散之文.

하나의 木이 火를 거듭 만난다면  
기산지문(氣가 흩어지는 文)이라 이름한다.

獨水三犯庚辛. 號曰體全之象.

하나의 水가 庚辛金 三位를 만나면 體全之象이라 한다.

水歸冬旺. 生平樂自無憂.

水가 겨울철에 생하면 평생 즐겁고 근심이 없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木向春生。處世安然必壽。

목이 봄철에 생하면 처세가 安然하고 수명이 길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金弱遇火炎之地。血疾無疑。

금이 약한데 화염지를 만나면 혈관계통의 질병이 의심없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 土虛逢木旺之鄉. 脾傷定論.

토일주가 虛한데 목왕운으로 가면 비위脾胃가 상한다.

筋痛骨痛。蓋因木被金傷。

근육과 뼈의 통증 및 신경통은  
대개 목일주가 약한데 금의 극을 받은 때문이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眼昏目暗。必是火遭水剋。

눈이 어두운 화가 수의 극을 받은 때문이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下元冷疾。必是水值火傷。

아랫배에 냉질이 있는 것은  
필시 수가 화에 의해 손상된 때문이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金逢艮而遇土. 名爲還魂.

金이 艮土(辰)를 만나면 還魂이라 한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土臨卯位。夫中年便作灰心。  
金遇火鄉。雖少壯必然挫志。

土가卯에 임하면 중년에 갑자기 실패가 되고  
金이火運으로 향하면 비록 소년에 건장해도  
필연코 뜻을 깨는다.

金木交差刑戰. 仁義俱無.  
水火遞互相傷. 是非日有.

金과 木이 交戰하면 인의가 모두 없고  
수화가 서로 상하면 시비가 날로 생긴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

木從水養. 水盛而木則漂流.

木이 水를 쫓아 자라나 水가 태왕하면 木이 표류한다.

金賴土生。土厚而金遭埋沒。

금이 토에 의뢰해서 생하나 토가 너무 많으면 금이 매몰된다.

연해  
자평  
계선편  
繼善篇